

2185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0540  
(202) 225-4111  
FAX: (202) 226-0335

1110 E. CHAPMAN AVENUE  
SUITE 207  
ORANGE, CALIFORNIA 92866  
(714) 744-4130  
FAX: (714) 744-4056

www.royce.house.gov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EDWARD R. ROYCE  
Fortieth District-California

FOREIGN AFFAIRS  
Subcommittees:  
Ranking Member,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Middle East and South Asia

FINANCIAL SERVICES  
Subcommittees:  
Capital Markets, Insurance and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 Credit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and Trade

April 9, 2010

2010년 4월 9일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3014 Castle Rd  
Falls Church VA 22044

동료들에게:

북한자유주간의 개최를 간절한 소망과 함께 지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 이 포럼이 처음으로 남한에서 열리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북한자유주기는 열악한 인권 침해의 현상이자 지금도 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정치적,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이의나 비판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언론이 정부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는 곳, 위법자에게 육체적 학대가 가해지는 곳, 비정부기구가 묘사한 바와 같이 구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를 꼭 빼 닮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에는 150,000 명에서 200,000 명으로 추정되는 수감자가 갇혀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인권 유린이 가장 심각한 곳이 북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엄청난 인도적(人道的)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국제 사회에서 가장 등한시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자유주기와 같은 행사는 이토록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여 그간 소홀했던 관심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권리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미 국회도 여기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한번의 성공적인 북한자유주기를 개최하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을 담아,

에드워드 R. 로이스